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우리 국가의 자강력을 키우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의 명마루를 정복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 평도방식의 특성, 독창성이며 이 변함없는 원리, 이 특출한 혁명평도방식으로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평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의 명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승결을 같이 하여야 하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경만겁의 천연요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안에는 오직 당의 사상과 승결만이 맥박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름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는 전군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중요한 투쟁구호로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올해에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철두철미 혼연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올해 포병훈련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 포병무력의 질적강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시사없이 단발에 명중하는것을 포병훈련에서 도달하여야 할 기본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올해에도 실지싸움에서 부닥칠수 있는 정황과 환경을 모의하여 그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찾아 대책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대들의 실천능력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쌓기 등으로 들어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당에서 제시한 필수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며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군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혁명의 복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청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였다.

신군혁명의 전도와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청년군인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단련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청년사업을 당정치사업의 3대축의 하나로 들어쥐고 적극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정치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건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인민군대에서 청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군인들을 총대와 함께 청춘시절을 빛내어나가는 청년강국의 핵심물건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역세게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

사람과의 사업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군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발휘하여 군인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옹운 방법론을 가지고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결사관철하는것을 올해 후방사업의 총적목표로 정하고 3대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며 후방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 전군의

모든 중대와 대대를 당중앙위원회 트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인민군대는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항상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들고 힘찬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젖히며 군인정신, 군인분배, 군인기질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문명강국건설의 뿌리가 되고 돌격대가 될 때 이 땅우에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고귀한 인민의 재부들이 차넘치고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